



22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2회말 1사 1루 KIA 최원준(왼쪽)이 두산 김재호의 우익수 파울 플레이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로 수비를 마치고 팻딘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분노의 호랑이 3홈런...꿈 마운드 난타

김주찬·나지완 홈런 등 장단 22안타 잠실 두산전 14-4 대승

선발 전원 안타·팻딘 2승...최원준·이영욱 신들린 수비 '백미'



KIA 타이거즈의 '캡틴' 김주찬이 또 한 번 팀의 연패를 끊었다. 김주찬은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투런포 포함 멀티히트로 4타점을 쓸어 담으며 14-4 승리를 이끌었다. 버나디나도 솔로포를 더한 4안타로 맹활약했다. 두산과의 시즌 첫 만남에서 선발진의 난조로 연달아 패배를 기록한 KIA는 시리

즈 마지막날 홈런 3개 포함 장단 22안타로 설욕전을 펼쳤다. 지난 17일 LG와의 홈경기에서 4안타소로 4연패의 팀을 구했던 김주찬이 이번에도 연패를 끊은 수훈 선수였다. 김선빈의 2루타로 시작된 1회초 버나디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0이 됐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선 김주찬이 연달아 헛스윙하면서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다. 그러나 볼 하나를 지켜본 김주찬은 두산 유희관의 4구째 131km의 직구를 공략해 좌측답장을 넘기면서 3-0을 만들었다.

▲잠실전적(22일)

KIA	303	340	100	14
두산	000	010	021	4
△ 승리투수 = 팻딘(2승)	△ 패전투수 = 유희관(1승 2패)	△ 홈런 = 김주찬 6호(1회 2점)	버나디나 5호(4회 1점)	나지완 5호(5회 2점·이상 KIA)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고 온 KIA는 3회 다시 유희관 공략에 나섰다.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나지완·정성훈이 연속 2루타를 날리며 2점을 보냈다. 그리고 김민식도 우중간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KIA 타자들의 장타 행진에 유희관은 3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KIA의 공세는 계속됐다. 4회초 버나디나가 우월 솔로포를 날리며 7-0을 만들었다. 김주찬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최형우의 병살타가 나왔지만, 나지완과 정성훈이 다시 한번 연속 2루타를 날렸다. 최원준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9-0까지 벌어졌다. 김주찬은 5회 네 번째 타석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2타점을 보냈다. 김선빈의 중전 안타와 버나디나의 2루타로 무사 2·3루, 김주찬은 중전 안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김주찬은 이후 나지완의 투런포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도 올렸다. 팻딘의 한방을 시작으로 거침없이 움직인 KIA 방망이는 6회 나온 홍재호의 좌전 안타를 끝으로 선발 전원 안타에 성공했

다. 올 시즌 8번째이자 KIA의 시즌 첫 번째 기록이다. KIA 선발 팻딘은 모처럼 타석의 화끈한 지원을 받으면서 '3전 4기' 끝에 시즌 2승에 성공했다. 팻딘은 앞선 등판에서 9회초 나온 안치홍의 실책으로 승리를 날렸지만, 이날은 야수들이 호수비 행진까지 하며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1회말 첫 타자 최주환을 1루 땅볼로 처리한 팻딘은 허경민과 박건우를 외야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삼자범퇴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팻딘은 2회 첫 타자 김재환에 우전안타를 내줬지만 양의지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김재호와의 승부 때 우익수 나선 최원준의 호수비가 나왔다. 안타성 타구를 견어낸 최원준이 1루 송구로 스

타트를 끊은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냈다. 4회에는 김선빈과 버나디나가 좋은 수비로 아웃카운트를 더해줬고, 5회 3루로 이동한 최원준이 다시 한번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등 야수들이 공수에서 힘을 보태줬다. 팻딘은 5회말 선두타자 김민혁을 중전 안타로 내보낸 뒤 2사 3루에서 최주환에 적시타를 맞았지만 이게 유일한 실책이었다. 6회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한 팻딘은 류지혁에게 우측 2루타를 내준 7회에도 두 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85개의 공으로 7회를 막은 팻딘은 5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3승...동료는 축포 세 방

나흘만의 등판서 7이닝 삼진 8개 무실점...다저스, 워싱턴에 4-0 승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또 다시 '삼진 쇼'를 벌이며 시즌 최고의 투구로 3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2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2안타와 볼넷 3개만 내주고 삼진 8개를 빼앗으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89개의 공으로 올 시즌 가장 긴 7이닝을 책임진 류현진은 다저스가 1-0으로 앞선 7회말 자신의 타석 때 대타 엔리케 에르난데스로 교체됐다. 에르난데스가 바로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8회말에는 코디 벨린저가 우월 투런포를 쏘아 다저스는 결국 홈런 세 방으로 워싱턴에 4-0으로 눌렀다. 류현진은 시즌 3승째를 거두고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속구 외에 컷 패스트볼(커터),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강약 조절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탈삼진 8개 이상을 잡아냈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1점대(1.99)까지 떨어졌다.

워싱턴 선발 스티븐 스트래츠버그도 7이닝 동안 탈삼진 10개를 결들이며 5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패전의 멍에를 썼다.

류현진은 1회초 2사 후 브라이스 하퍼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허용했으나 라이언 짐머만을 유격수 땅볼로 요리했다. 2회에는 1사 후 맷 윌터스에게 첫 피안타를 기록했으나 마이클 A. 테일러, 윌버 디포를 잇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러자 잭 피타스니가 2회말 1사 후 중월 솔로 아치로 시즌 첫 홈런 맛을 보며 다저

류현진 2018년 MLB 등판 일지

날짜(한국시간)	구장	상대팀	투구 내용	경기결과
4월 3일	체이스필드	애리조나	3⅔-5-3(3)-0-5-2-75-7.36	7-8
1승	11일	다저스타디움	6-1-0-0-1-8-90-2.79	4-0
2승	17일	팻코파크	6-3-2(2)-1-0-9-93-2.87	10-3
3승	22일	다저스타디움	7-2-0-0-3-8-89-1.99	4-0

LA 다저스

류현진 (31, LA 다저스)

① 투구 내용: 이닝-피안타-실점자책점-피홈런-볼넷-탈삼진-투구수-평균자책점 ② 연합뉴스

스에 1-0의 리드를 안겼다. 류현진은 3회초 큰 위기를 맞았다. 1사 후 트레이 터너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했고, 연속 볼넷으로 2사 만루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모이세스 시에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4회에는 '삼진 쇼'가 펼쳐졌다. 윌터스에게 체인지업, 테일러에게 속구, 디포를 상대로는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해 세 타자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5회초 첫 타자인 투수 스트래츠버그까지 네 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한 류현진은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6회초 다시 중심타선과 마주한 류현진은 하퍼를 유격수 직선타, 짐머만을 유격수 땅볼로 아웃시킨 뒤 시에라의 방망이는 헛볼게 했다. 류현진은 7회초에 공 5개, 삼자범퇴로 워싱턴 타선을 침묵시켰다. /연합뉴스

## 고진영·박인비 LA오픈서 시즌 2승 도전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강력한 신인왕 후보 고진영이 휴젤-JTBC LA오픈(총상금 150만 달러) 공동 선두로 올라서 시즌 2승 도전에 나섰다. 고진영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워서 컨트리클럽(파71·6450야드)에서 열린 셋째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6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단독 6위였던 고진영은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로 모리야 쥬타

누간(태국)과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LPGA 투어 데뷔전인 호주여자오픈 우승 등으로 신인왕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고진영은 조부상으로 지난해 롯데 챔피언십 출전을 취소하고 한국에 다녀간 뒤 나선 이번 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LPGA 투어 통산 20승을 노리는 박인비는 이날 두 타를 풀어 공동 선두에 두 타 차 3위(9언더파 206타)에 자리했다.

박인비는 연이은 보기로 초반 주춤했으나 이후 버디만 4개를 추가해 순위를 끌어 올렸다. 세계랭킹 1위 펑산산(중국)은 3라운드까지 공동 12위(2언더파 211타), 2위 렉시 톰프슨(미국)은 공동 23위(이븐파 213타)다. 공동 4위(6언더파 207타) 지은희도 선두를 세 타 차로 뒤쫓으며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뒀다. 2라운드 단독 3위였던 유소연은 두 타를 잃어 8위(4언더파 209타)로 밀렸다. /연합뉴스

## 정현 1회전 부전승

바르셀로나오픈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9위·한국체대)이 약 한 달 만에 복귀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비교적 수월한 대진표를 받아 들었다.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ATP 투어 바르셀로나오픈(총상금 251만900 유로)에 출전하는 정현은 대회 9번 시드를 받고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막을 올린 ATP 투어 마에미 오픈에서 8강까지 올랐던 정현은 약 3주간 국내에서 머문 뒤 18일 다시 스페인으로 떠났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2회전에서는 예선 통과자까지 맞대결에서 이긴 선수와 상대한다. 대회 1번 시드는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 2번 시드는 그리고르 디미트로프(5위·불가리아)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 동성중 춘계 중학야구 우승

동성중이 2018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동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65회 전국 중학교 야구 선수권대회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첫 상대 총장중을 6-4으로 꺾은 동성중은 무등중도 10-3으로 이기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동성중은 마지막 날 진흥중과의 대결에서 5-6으로 패하면서 무등중과 2승 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최소

실점(13점)에서 무등중(20점)에 앞섰다. ◇수상내역 ▲우승:동성중 ▲준우승:무등중 ▲최우수선수상:송성중(동성중) ▲우수투수상:신현민(동성중) ▲타격상:이석현(0.714·7타수5안타·총장중) ▲최다도루상:김미르(2개·무등중) ▲최다타점상:심명훈(5타점·동성중) ▲감투상:백진수(무등중) ▲미기상:김도영(동성중) ▲감독상:강대성(동성중) ▲지도상:송치용(동성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